

경영저널



COVER STORY 고윤환 문경시장

도약하는 문경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경영Story 두 얼굴의 자본주의자, 존 데이비스 록펠러

Hot Issue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갈등 해법 없나

지자체가 뭘다 대구 서구청 교육정책팀

현장 진분홍 천상의 화원이 펼쳐진다, 배슬산 참꽃문화제

우리지역 유망기업 교통광고 전문기업 (주)한국교통정보

초대석 고동현 서대구산업단지협회 이사장

생생 금융정보 국민행복기금, 서민생활안정 신호탄 뭘까

45th
2013 **5**

CLICK

e-비즈니스

월간 경영저널 포털사이트와 동반성장할 쇼핑몰 입점 희망업체를 모집합니다!

월간 경영저널이 올해 하반기 정보와 뉴스, 쇼핑몰을 결합한 **영남권 최대 포털사이트**를 오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경제계 뉴스, 각계층의 인터뷰, 부동산과 경매정보 등이 망라되고,
영남지역의 농특산물과 특화된 지역 기업체의 제품을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이 필요한 회사, 제품 판매 경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회사,
좋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셀링파워가 약한 회사, 웰빙 트렌드에 맞는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모두 입점이 가능합니다.

쇼핑몰 입점 업체에는 전문가 경영 컨설팅과 온·오프라인 홍보 등
원스톱 서비스 혜택을 드립니다.

쇼핑몰 입점 문의:

전 화. 053-766-1368

이메일. k_journal@daum.net



경제·정책전문매거진

경영저널





12



15

07 청호(靑湖)칼럼

이진구 경영저널 대표이사 · 발행인

08 Cover Story

고윤환 문경시장

글로벌 스포츠 · 관광 도시, 일등 문경으로 새롭게 도약한다

12 도약하는 문경

스포츠를 통한 지구촌 평화와 우정의 한마당,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15 관광의 도시 문경

900년 전통 찻사발에 담긴 깊은 울림, 문경전통찻사발축제

18 지방자치단체 정책탐구 I

향토 예술인, 지역관광 활성화 첨병(尖兵)

20 경영Story

두 얼굴의 자본주의자, 존 데이비스 록펠러

24 Hot Issue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갈등 해법 없나

29 윤기태의 Tax&Accou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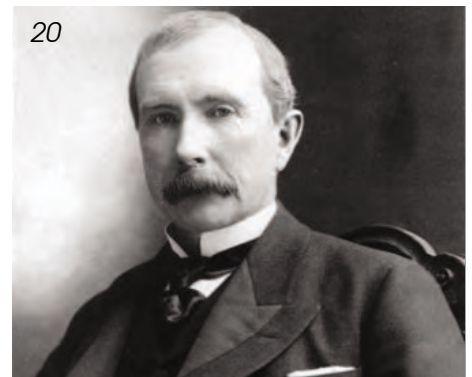
면세대상사업과 과세대상사업의 종류

30 지방자치단체 정책탐구 II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장소마케팅의 방향



08



20



24

www.**KEPI**.or.kr



“한국경제기획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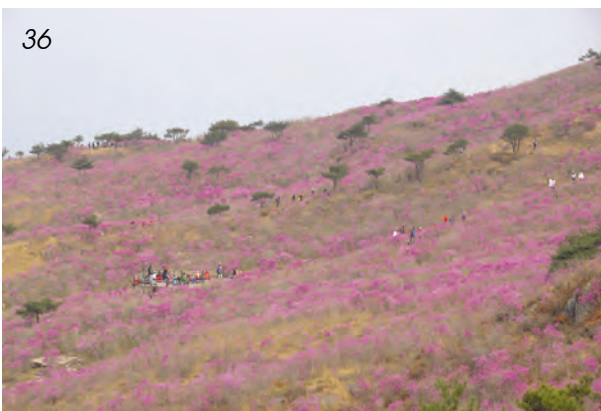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한 | 기 | 연

- 33 칭찬합시다**
장관식 경북도청 독도정책과 주무관
- 34 지자체가 똬다**
대구 서구청 교육정책팀
- 36 현장**
진분홍 천상의 화원이 펼쳐진다, 비슬산 참꽃문화제
- 38 우리지역 유망기업**
교통광고 전문기업 (주)한국교통정보
- 41 지방자치단체 정책탐구Ⅲ**
SN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활용
- 44 생생 금융정보**
국민행복기금, 서민생활안정 신호탄 뿜까
- 46 초대석**
고동현 서대구산업단지협회 이사장
- 48 Special Report**
최영조 시장 취임 4개월, 경산시 무엇이 달라졌나
- 51 지역소식**



경영저널

통권 제45호

발행인·인쇄인	이진구
편집장	백재호
취재	배준수
사진	김원현
편집디자인	신동희
편집위원	홍순대, 손지강, 이광희, 김기환 장승욱, 민경량, 이포상
인쇄처	신흥인쇄
발행처	www.경영저널.com
본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북본부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427-6번지 203호
대표전화	대구 053)766-1368 FAX 054)766-1356 안동 054)823-2828 FAX 054)823-2827
등록번호	대구라07691
창간	2007년 11월 5일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구독 및 광고문의	053)766-1368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48,000원
정가 : 5,000원
예금주 : (주)경영저널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 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대구·경북 시·도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706-8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k_journal@daum.net
전화 053) 766-1368 FAX 053) 766-1356

부성애와 이 시대의 아버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본능적인 사랑을 부성애(父性愛)라고 한다. 지난해 불어닥친 ‘힐링’에 이어 ‘부성애’가 올해 핫 키워드가 되고 있다. ‘아빠 어디가’라는 TV 예능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하는 우리네 아빠들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TV에서처럼 여행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런 스킨십을 나누고, 그동안 엄마에게 맡겨뒀던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사실 우리 세대는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에 앞서 특별한 소설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창인의 소설 ‘가시고기’가 그것이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앓는 어린 아들을 살리려고 헌신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담았다. 아버지는 이혼까지 하고서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치료하려고 다니던 직장을 잃었고, 가족마저 잃었으며, 급기야 자신의 눈을 팔아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했다. 눈물 콧물 썩 빼가며 읽은 이 소설은 새끼가 부화해 독립할 때까지 동지를 지키고 보호하는 습성이 있어 부성애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물고기 가시고기와 꼭 빼닮았고, 이 소설을 통해 서먹하고 낯선 아버지의 진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따뜻한 부성애를 지니고 있다. 핑계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동안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사이 가족들과의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고 부성애를 제대로 발현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만 존재하는 ‘아빠’도 있다. ‘기러기 아빠’다. 아내와 어린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후 국내에서 혼자 생활하는 아버지를 말한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내 자식만큼은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게 하겠다는 과도한 애정이 결합해 탄생한 문화라고도 한다. 무너진 공교육과

치솟는 사교육비, 자녀교육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준비하지만, 기러기 아빠들의 지극한 자식사랑 그 자체는 외면할 수는 없다.

기러기 아빠들은 고독감과 경제적인 부담에 시달리기도 하고, 유학 후 변해버렸다고 여겨지는 아내와 자식들의 모습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얼마 전 대구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있었다. 남 부러울 것 없는 치과의사로서 부와 명예를 갖췄지만, 수년간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며 외로움에 지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토록 기다리던 가족과 작별했다.

기러기 아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시대의 아버지들의 현실도 그리 녹록지 않다. 절대 권력을 상실한 비에 젖은 낙엽과 같은 존재 등 이 시대의 아버지에 대한 자조 섞인 단어들도 난무한다. 그러나 슈퍼맨일 것만 같던 우리네 아버지들도 결국 한 인간임을 알게 되면서 가족과의 갈등을 넘어 사랑을 재확인하게 되는 아서 밀러 원작 ‘세일즈맨의 죽음’을 재해석한 연극 ‘아버지’가 그나마 큰 위안이 된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이 멀고도 험난할 것 같지만, 생각을 바꾸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가족과 가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녀와 끊임없이 교감하려는 노력부터 실천해보자. 슈퍼맨이 아니라 친구 같은 존재가 돼 있을지도 모른다.



이진구
경영저널 대표이사 · 발행인

| 인터뷰 | **고 윤 환**
문경시장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문경. 문경새재는 영남과 한양을 이어지는 영남대로의 가장 높고 험한길로서, 영남지역 선비들의 출사길이 됐다. 이곳에서 불러진 아리랑 가사는 서양에 최초로 알려졌기에 근대아리랑의 원조로 통한다. 여기에다 깨끗한 공기와 물, 수려한 자연환경은 문경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었고, 곧 이 전해 올 국군체육부대와 2015년 개최될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는 문경이 스포츠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국토의 신 중심지로서 기존의 틀을 깨는 참신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거듭하고 있는 문경시의 현재와 미래를 고운한 시장으로부터 들여다봤다.

글로벌 스포츠 · 관광 도시, 일등 문경으로 새롭게 도약한다

Profile

1957년 문경
문경중학교, 문경종합고등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졸업
문경군으로부터 4년간 새마을 장학금 수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합격(1980년, 제24회)
인천직할시 기획담당관
청와대 행정관
국무총리실 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구청장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Q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소회와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지난 1년간 시민화합을 바탕으로 문경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문경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혼신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경을 인구 10만명내외 중소도시의 최적 모델로 개발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로 만들고자 합니다. 소중한 예산을 선심성으로 낭비하지 않고 소득과 의식, 교육, 문화, 도시개발 등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전형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Q

구도심 재창조 사업 의지도 밝히셨습니다.

A

점촌동 지역 구도심(건강랜드~청기와식당 구간)에 35억원을 투입해 차없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상권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나아가 문경의 새로운 문화트렌드를 탄생시키고자 합니다.

또 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과 점촌농협~미조리회집 구간을 먹거리 특성화거리로 조성하고, 시내 동지역을 푸르미공원화사업을 통해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는 구도심지 간판 디자인사업을 추진해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구도심을 재창조하겠습니다.

Q 기업이 찾아오고 일자리가 있는 문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소개해주세요.

A 일자리가 있어야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돌아옵니다. 인구증가의 필수 요건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친환경적인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었고, 마을기업을 육성해 향토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로 (주)종근당건강이 산양농공단지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주)새롭은 가은농공단에 김치공장을 짓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기업들이 가은, 산양 농공단지를 비롯해 신기산업단지에 분양 및 입주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Q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소개와 더불어 공식 명칭과 엠블럼 등 상징물에 개최지 지명이 배제된 문제를 풀어나갈 해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A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2015년 10월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문경시를 비롯해 포항, 김천, 안동, 영주, 상주, 예천 7개시·군에서 축구, 태권도 등 24개 종목, 110여개국에서 선수, 임원 등 8천700여명이 참가하는 규모의 국제대회입니다. 주 개최 도시인 우리시는 도로, 도시환경정비, 교통 등을 맡아 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조직위원회의 대회 상징물(엠블럼, 마스코트, 슬로건) 개발에 대한 보고에서 개최 도시인 '경북 문경'이 표기되지 않았는데, 주개최 도시의 위상제고를 위해 엠블럼에 반드시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을 정식 공문과 시민서명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도 엠블럼에 '경북 문경'을 표기할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최근 태릉선수촌보다 규모가 더 큰 국군체육부대(상무) 경기장 시설이 호계면 견탄리에 조성됐습니다. 국군체육부대도 조만간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를 스포츠도시 문경으로 도약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A 국군체육부대가 초현대식 첨단 경기장을 갖춘 시설로 건설됐습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주 경기장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국제규격의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이 시설을 활용해 각종 대회를 유치해, 명실상부한 스포츠 메카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Q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자랑도 해주십시오.

A '찻사발에 담긴 전통, 그 깊은 울림-사토에서 찻사발까지'라는 주제로 마련된 올해 문경찻사발축제는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화제가 됐습니다. 문경전통찻사발축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면서 국내 최대 녹차산지인 보성군, 하동군과 연계해 찻사발과 차(茶)가 어울리는 한 마당 잔치를 펼쳐 문경시와 보성군, 하동군간 상생의 축제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Q 지난해 6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리랑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근대아리랑의 효시인 문경아리랑과 관련한 정책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A 국립아리랑박물관을 아리랑 문화의 중심고개인 문경새재에 짓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경시는 사업비 1천200억원을 투입해 문경을 진안리 문경새재도립공원 입구 1만3천여㎡ 터에 아리랑박물관을 건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선교사였던 헐버트박사에 의해 서양악보로 채보된 최초의 아리랑인 문경새재아리랑과 후렴구가 같은 점이 알려졌듯이 역사성, 지리적 접근성에서 우월한 문경아리랑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국립민속박물관 함께 문경옛길박물관에서 아리랑 기획전도 열고 있습니다. 또한, 널리 불리우는게 중요한 만큼 젊은이들로 구성된 아리랑소리공연단을 만들어 터키

에서 열리는 세계문화엑스포 공연도 계획하고 있고, (사)한국서학회와 아리랑 7천수 쓰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국내아리랑 권위자를 모시고 국립아리랑박물관 문경건립 추진위원회를 창립해서 행정차원으로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2014경북도민체전,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 일자리가 많고 활기찬 행복도시 문경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담 | 백재호 편집장

정리 | 배준수 취재팀장 · 사진 | 김원현 기자

Q 문경을 넘어 대한민국의 보배인 문경새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한류열풍과 함께 해외관광객이 부쩍 늘고 있고, 대하드라마 촬영지로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A 문경새재는 연간 4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입니다. 문경관광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 국관광공사에서 한국인이 꼭 가봐야할 국내관광지 100선에서 3위를 한 관광지로서 청정문경에 힐링의 이미지를 덧 보태기 위해 새재노점상을 정비해 새재의 환경을 깔끔히 단장했습니다. 아울러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는 국내 유수의 드라마, 영화 등 웬만한 사극은 거의 이곳에서 촬영이 이뤄집니다. 지금 인기리에 방영중인 TV드라마 '장옥정' 과 '대왕의 꿈', '꽃들의 전쟁' 촬영도 한창입니다.

이렇게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세트장과 같은 볼거리, 맨발로 걷는 황토길, 사시사철 형형색색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풍광에 문경의 대표축제인 찻사발축제, 사과축제, 한우축제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문경새재를 통해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 장으로서 힐링문경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Q 시장님께서서는 문경의 변화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올 한해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A 제가 취임한지 1년을 맞았습니다. 기대이상의 성과도 있었고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8만 시민과 공직자가 하나되어 지혜와 열정으로 새로운 도약과 일등문경 건설에 매진해야겠습니다. 문경은 갈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시정, 정실에 치우치지 않는 공명정대한 시정,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시정을 통해 후손들에게 미래의 비전과 꿈이 있는 문경을 물려주기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한



지난 4월1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고윤환 문경시장이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지구촌 평화와 우정의 한마당,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일원에 건립된 국군체육부대의 육상훈련장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메인스타디움으로 활용된다. 지난 3월31일 준공돼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2015년 10월2일부터 10일간 110개국 8천700여명 참가하는 대축제 스포츠 메카 문경 도약 절호의 기회,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필수

'2015'. 세계가 주목하는, 문경이 주목받기도 하는 숫자다. 전 세계 군인들이 펼치는 화합의 올림픽인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리는 해다. 2015년 10월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주 개최 도시 문경시를 비롯해 개최 협력 도시인 안동, 예천, 상주, 영주, 김천, 포항에서 110개국 8천700여명이 태권도와 양궁, 배드민턴과 야구, 독도법, 육·해·공군 5종(탈출, 사격 등) 등 24개 종목을 통해 자웅을 겨룬다. 문경시는 이 대회를 통해 주 개최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포츠 메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6th CISM World Games Korea



세계 3대 국제대회 규모, 'Friend Through Sports'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참가수로 보면 올림픽, 유니버시아드대회와 함께 세계 3대 국제대회 규모를 자랑한다. 1995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2015년 6회째 맞는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우정의 어울림, 평화의 두드림(Friendship Around, Peace Abound)'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다. 주 개최 도시인 문경에서는 사이클과 펜싱, 유도, 태권도, 마라톤, 근대5종, 육

상, 레슬링, 축구 등 5개 종목이 펼쳐지고, 상주에서는 핸드볼 경기가 열린다. 또 김천에서는 수영과 배구, 안동은 농구와 골프, 영주는 복싱과 독도법, 예천에서는 공군5종과 양궁이 이어지고, 영천과 대구를 포함한 포항권에서는 해군5종과 고공강하, 요트, 철인3종, 육군5종, 사격 종목이 열린다.

문경시는 대회 주경기장으로 활용되는 국군체육부대(상무)의 세계적 홍보를 통한 글로벌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할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대회 참가 임원과 선수단 등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0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회의 사회적 파급 효과는 1조7천770억원으로, 경북지역에만 739억원의 생산 유발, 37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1천174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북한을 이 대회에 참가시킬 경우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통해 남북 간 신뢰 프로세스 구축과 우호협력의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회 메인 무대 위용 드러내다

세계군인체육대회의 핵심 경기가 치러질 메인 무대가 될 국군체육부대가 2009년 7월 착공 후 3년8개월 만인 지난 3월31일 준공됐다.

국군체육부대는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148만㎡ 부지에 체육시설 27동과 병영시설 25동, 영외아파트 2동 등 55개동으로 건립됐다. 이 가운데 1만5천석의

관중석을 갖춘 국군체육부대의 주경기장인 육상훈련장은 2015년 열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의 메인스타디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 경기장 옆에는 눈이나 비에 상관없이 전천후로 연습할 수 있는 실내훈련장이 있으며, 이곳에는 100m 트랙이 있는 실내육상장과 농구장 등 실내 경기장이 마련돼 있다. 또한, 야구장과 남녀축구장, 럭비장, 사이클장, 하키장, 근대5종경기장, 장애물경기장, 실내테니스장, 트랙 등도 함께 갖춰져 있다. 빠르면 6월께 국군체육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상무 소속 선수와 행정관리병사 등 700여명이 상주하게 되며, 외부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위해 수시로 이곳을 찾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국군체육부대와 함께 각종 국내외대회를 유치해 스포츠 도시로 성장시켜나갈 계획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역의 이한성 국회의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차원의 대회 지원을 촉구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반드시 성공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글 | 배준수 취재팀장

사진제공 | 문경시





지난해 문경전통찻사발축제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전통 발물레로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900년 전통 찻사발에 담긴 깊은 울림

문경전통찻사발축제 5월5일까지 문경새재 일원
문광부 지정 최우수 축제, 누구나 꼭 가봐야 할 축제로 각광

정호다완(井戶茶碗). 일본 사람들이 '무기교의 기교'라고 극찬하며 보물로 여겨 국보의 자리에 올려놓은 막사발이다. 바로 문경사발이다. 청자니 백자니 하는 도자기들이 왕실과 관청, 양반들이나 사용하던 고급 그릇인데 비해 관요(官窯)가 아닌 민요(民窯)가 있던 문경의 생활도자기는 그 역사가 900여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발물레와 전통 장작가마인 망댕이가마로 생산하고 있는 문경사발에 담긴 전통과 그 깊은 울림은 여전하다. 이를 고스란히 보고 느끼고 만지고 즐길 수 있는 '2013문경전통찻사발축제'가 4월27일부터 5월5일까지 문경새재 일원에서 이어진다.



전통다례시연을 체험하고 있는 축제 참가자들.

국내 최고 도예가들의 정성 한 곳에

올해 15회째 맞는 문경전통찻사발축제는 전통방식만을 고집하는 문경의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스며있다. 1991년 정호 다원을 재현해 도예명장이 된 백산 김정옥 사기장과 1995년 대한민국 도예명장이 돼 일본에 도자기 한류열풍을 일으킨 도산 천한봉 사기장, 주효요 이정환 경북도 도예 최고장인, 이구원 대한민국 기능 전승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을 비롯한 37명의 문경 도예인들이 손에 흙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정성들여 준비한 찻사발과 함께 도예명장들의 특별 작품전이 마련돼 있다. 또한 전국 찻사발 공모전과 국제 찻사발 공모전을 통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수준 높은 작품도 감상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의 찻사발을 만날 수 있다. 더불어 찻사발 제작과정을 상세하게 접할 수 있는 찻사발 스토리텔링 관심을 끌고 있다.

문경의 전통방식 만나다

도자기 예술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흙과 불의 조화와 함께 그 속에 녹아 있는

도공(陶工)들의 혼이라 할 수 있다. 문경 전통 도자기는 고려말인 11세기부터 지금까지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전통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그렇게 흙과 불의 조화를 이루고, 마침내 옹고집 도공들의 검허한 혼을 녹여내고 있는 것이다.

축제에서는 발물레와 망댕이가마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물레는 심축(心軸)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운동을 이용해 도자기원료로 쓰이는 진흙에 힘을 가해 성형을 하도록 하는 도구인데, 전력 또는 기타 동력을 빌리지 않고 발을 이용하는 것이 발물레다. 단순하게 발물레를 체험하는 것을 넘어 전통발물레 경진대회도 이번 축제에 마련돼 있다.

원통형 흙웅치를 촘촘히 박아 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장작 가마인 망댕이가마는 문경도자기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대변해주는데, 축제에서는 망댕이가마 불지피기 체험과 망댕이가마를 통한 초벌, 시유, 재벌, 완성품 전시가 이어진다.

더불어 이렇게 탄생한 문경찻사발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깜짝경매 행사도 빼놓을 수 없고, 무대행사나 게임에 참여하면 복창잔을 상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연간 400만명 찾는 문경재세의 또 다른 재미

문경전통찻사발축제에서는 찻사발과 도자기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은 물론, 조선시대 주막거리와 저잣거리도 만나볼 수 있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프로그램이 풍성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연간 400만명이 찾는 문경의 보배 문경새재에서 축제가 열리는 탓에 재미는 배가 된다.

특히 가족과 함께 찾는 경우라면 10만송이 봄꽃이 반기는 문경새재도립공원 내 자연생태전시관과 '길 위의 노래 고개의 소리, 아리랑' 기획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옛길박물관, 사극 촬영의 메카인 문경새재오픈세트장 등을 체험할 수 있고, 문경새재 옛길 자체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더 없는 즐거움이 된다.

시간이 더 난다면 도자기박물관과 석탄박물관, 철로자전거, 사격장, 온천 등 축제의 즐거움을 더해줄 색다른 체험거리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올해는 전통방식 그대로 만들어지는 문경찻사발의 본질을 알리는데 축제의 중점을 뒀다. 또한 옛 선비들이 걸었던 문경새재에서 색다른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다"고 말했다.

글 | 배준수 취재팀장
사진제공 | 문경시

군위 청정자연을 담은 건강한 우리 농산물

우리 몸을 이롭게, 가족의 건강을 이롭게 -
싱그러운 자연으로 가득 채운 건강한 먹거리, e로운!
군위의 맑은 물과 공기가 만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입니다.



향토 예술인, 지역관광 활성화 첨병(尖兵)

산업화 과정을 거쳐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사회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21세기를 전후해 문화와 창의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또한, 정보화시대를 맞아 문화콘텐츠 산업이 두각을 보이면서 발전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매년 유럽의 유명 화가나 조각가의 작품을 임대·전시해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물질적 풍요와 정보화시대를 맞으면서 사람들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2006년부터 한국사회는 주5일제 근무라는 근로환경의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2007년에는 모든 국가기관이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사업장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주5일제 근무는 사람들의 복지에 도움을 주고 경제적으로는 문화와 레저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주5일제 근무 이후 주말이면 가족단위의 농촌체험 여행이 늘면서 많은 농촌이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펴고 있다.



2008년 12월5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 설립된 추사기념관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탄생에서부터 추사체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일대기를 볼 수 있다. 예산군 제공.



도시민의 농촌 방문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해 재방문을 유도해야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볼거리와 체험거리는 홍보를 통해 도시민의 주말 여행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지역이 가진 문화적 자산을 이용한 문화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은 충남 서산시 지곡면 소재 안견창 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황석봉 작가와 간담회를 하고, 황 작가의 작품이 가미된 관광상품 개발을 논의했다. 가장 핵심적인 논의 사항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기념품이나 홍보에 황 작가의 작품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역 예술인 발굴과 함께 문화상품 창조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번 간담회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향토 예술인들의 발굴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적 가치 창출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충남의 관광휴양도시 예산은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이며 서예가이자 금석학의 대가로 잘 알려진 추사(秋史) 김정희 선생의 고향으로 추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유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추사 선생의 증조부인 김한신이 건립한 추사 고택은 1976년 문화재로 지정돼 추사여행을 떠나기 전 제일 먼저 둘러야 할 곳으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추사 고택 주위에는 백송 한 그루와 화엄사 등 다양한 추사 문화유산이 남아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군은 추사문화상품화 사업으로 예산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있다. 추사의 일생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동화&만화책’, 문화사업과 서민적인 추사의 이미지에 접목시킨 ‘추사 밥상’은 추사 스토리가 담긴 다양하고 부담 없는 가격대의 밥상을 재현했다. 또한, 추사항토자원을 기반으로 한 추사체험프로그램과 사과와인, 삼다리 전통한과 등 다양한 추사문화상품을 개발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화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청송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가인 남관 화백을 기념하는 기념관 건립 사업을 통해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관 화백은 청송군 부남면에서 태어나 일본 유학을 거쳐 프랑스를

주무대로 작품활동을 하였으며, 한국인 최초로 ‘망통비엔날레’에서 피카소, 뷔페, 타피에스, 아르망 등을 제치고 대상을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화가로 작가적 위치를 다졌다. 귀국한 후에는 한국미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 예술원상 등을 수상했다.

청송군은 세계적인 예술가 남관 화백의 예술혼을 기리고 청송군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공공미술의 관광자원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함께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돕고 있다.

지자체들이 유명 문화예술인들의 기념관 건립에 나선 것은 지역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교육의 장 조성은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써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화사업이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려면 하드웨어적인 시설 확충과 함께 지역의 농특산물과 연계, 지역의 문화예술사업의 브랜드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돼야 한다. 지역의 향토 예술인을 활용한 문화예술정책이 관광상품화로 연결돼 현재의 농어촌이 보다 활기를 띌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 | 홍순대 편집위원



두 얼굴의 자본주의자 존 데이비스 록펠러

이익추구가 신앙이 된 남자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란 말은 널리 사용되지만, 그 반대개념이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자(資本主義者)'란 말은 상대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념 추구형 인간형과 이익 추구형 인간형에 대한 상반된 사회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이익추구를 이념과 신앙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린 인간형도 존재하니, 대표적 인물이 미국의 존 데이비스 록펠러(John D. Rockefeller)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부자이자 기업인이며 기부자이기도 한 록펠러는 능히 자본주의자라 불릴 자격이 있는 인물이다.

독실한 침례교도이기도 했던 록펠러는 이익추구를 신앙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린 사람이었다. 천문학적인 재산을 소유했지만 150달러의 보험료 손해를 건디지 못해 생명이 나서 드러누울 정도였으니 그의 돈에 대한 집착은 신앙의 수준이었음이 틀림없다.

록펠러는 신을 자신의 동맹이자 자기 회사인 스탠더드 오일의 명예주주라고 믿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허물은 자연스럽게 덮어졌고, 도덕적 면죄부를 스스로 발급할 수 있었다. 즉 록펠러는 자본주의적 이익추구를 신의 섭리로 봤다.

록펠러는 1839년 뉴욕주에서 무절제하고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아버지와 신실하고 엄격한 침례교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헐잡꾼이었다. 타지를 돌며 사기행각을 일삼고 나중에는 의사 행세를 하면서 만병통치약을 팔았다. 두 도시에 두 가정을 두고 이중생활을 하다 결국 본래의 가족을 버렸다.

록펠러는 5형제의 장남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결핍을 침례교 신앙으로 채웠으며, 기독교 신앙은 평생 그의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스탠더드오일 트러스트

록펠러는 자수성가로 사업을 일궈냈다. 록펠러가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한 것은 스무 살 때인 1859년이었는데, 이때 건초와 곡물, 육류 등의 상품을 취급하는 중개회사를 설립했다. 사업적 안목이 탁월했던 록펠러는 젊은 나이에도 당시 미국 동북부 지역에서 태동하던 석유산업의 가능성을 알아봤다. 1863년 오키호의 클리블랜드 근처에 처음으로 자신의 정유소를 세운 이후 그는 석유사업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무자비하고 물불 안 가리는 록펠러의 사업스타일은 초창기 석유산업의 야성과 잘 맞았다. 록펠러가 석유산업에 발을 들이기 시작할 무렵, 석유산업은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뛰어들어 부나방 같은 인간 군상들이 닥치는 대로 석유를 굴착하고, 석유가격은 미친 듯이 널뛰던 아바위판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록펠러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려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1870년 록펠러와 그의 동료는 오키호의 스탠더드오일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경쟁업체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1872년 무렵에는 클리블랜드의 거의 모든 정유소를 장악했으며, 오키호의 거의 모든 석유를 독점할 수 있는 위치가 되자 당시 교통수단의 중심이었던 철도와 협상할 수 있었다. 철도 당국과 협상해서 수송비 혜택을 받아냄으로써 오키호 내에서 스탠더드오일의 독점적 위치는 한층 더 강화됐다.

록펠러는 오키호에서 성공한 방법을 다른 주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총 9개 주의 석유 시장을 지배했는데, 각 주에 스탠더드오일을 설립해 미국 내 석유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1881년, 록펠러는 9개의 석유 기업을 총 관리 하는 거대 사업체, '스탠더드오일 트러스트

트'를 출범시켰다. 이후 스탠더드오일 트러스트는 다른 분야의 독점업체들에도 조직모델이 될 정도로 독점기업의 전범이 됐다.

결국, 스탠더드오일은 여론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몇몇 주(州)들은 독점금지법을 제정해서 록펠러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1890년에는 미국 연방의회도 셔먼의 독점금지법(Sherman Anti Trust Act)을 통과시켰다.

1892년 오하이오 주 대법원은 스탠더드오일 트러스트가 오하이오 주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독점기업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록펠러는 스탠더드오일 트러스트를 해체해 재산을 다른 주에 있는 회사들로 이전시키고, 동일한 9명의 검임 중역회사가 계열사의 경영을 관장하도록 하는 편법으로 오하이오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켰다.

1899년 스탠더드오일의 계열사들은 뉴저지 주의 지주회사인 뉴저지 스탠더드오일로 다시 통합됐다. 통합된 회사는 1911년 연방대법원에 의해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불법 기업으로 판정받을 때까지 존속했는데, 이 뉴저지의 스탠더드오일이 2013년 4월 현재 뉴욕증시의 시가총액 1위를 기록 중인 석유회사 엑손모빌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스탠더드오일 트러스트는 1911년 미 연방대법원에서 반 트러스트법위반판결을 받을 때까지 30년 동안 미국 석유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가격경쟁, 정경유착, 산업스파이, 경쟁업체 직원매수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됐다.

버트런드 러셀은 '록펠러는 경제에서 비스마르크는 정치에서 독점 체제와 관료제 국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보편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의 꿈을 깨뜨렸다'며 록펠러의 독점체제를 자유주의의 적으로 규정할 정도였다.

록펠러재단과 러드로 학살

2013년 5월로 록펠러재단이 설립된 지 꼭 100년이 됐다. 1909년 록펠러 재단의 설립신청서가 미 행정부에 제출됐을 때 미국정부는 3년이나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정부 내에서 록펠러의 행동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던 탓이었다.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는 '그가 얼마나 선행을 하든지 간에 재산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 없다'며 록펠러에 대한 당시 미국사회의 반감을 표출했다.

우여곡절 끝에 1913년 5월 5천만달러의 출연금으로 록펠러재단이 설립됐고, 록펠러재단은 지난 100년 동안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비디오아트의 창시자인 백남준도 록펠러재단의 후원으로 미국에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펼칠 수 있었으니, 록펠러재단의 전방위적인 기부와 후원이 학문과 예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임이 틀림없다.

사실 록펠러는 재단설립 전인, 스탠더드오일의 독점에 대한 여론의 공세가 거세지기 시작한 1890년부터 기부할

동에 나섰다. 침례교 신앙과 50대 이후 악화한 건강도 기부활동의 동기가 됐다. 록펠러는 1892년 시카고대학 설립에 지대한 물적 공헌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이 대학에 8천만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현재가치로 따져보면 수십억달러 이상 기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카고대는 지금까지 8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물리학과 의학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한 대학이지만 경제학 분야에서는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 학파의 본산이기도 하다. 통화주의학파는 조금 과장한다면 자본주의 시장의 완전 무결성을 입증하려 했던 경제학파이며, 이 익추구는 신의 섭리라는 록펠러적 가치관에 충실한 경제학파였다. 60~70년대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던 케인지언들과 첨예한 논쟁을 벌였으며, 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록펠러재단이 설립된 1913년은 록펠러 인생에서 최악의 해이기도 했다. 1913년 미국 콜로라도주 탄광에서 광원 9천여명이 가혹한 작업환경을 견디다 못해 파업을 일으켰다. 회사가 고용한 무장 구사대와 광원들이 충돌하면서 파업은 1년을 넘겼다. 이 탄광의 소유주가 록펠러였다.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민병대가 기관총을 난사해 40명의 파업광원이 숨지고 대피를 위해 판 지하토굴에서 광원들의 가족인 여성 2명과 어린이 11명의 시체가 발견되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결국, 연방군까지 동원되고 나서야 진정된 이 사건은 '러드로의 학살'로 불리며 미국 노동운동사에서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록펠러 딜레마

사업에 있어서는 무자비했던 록펠러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고 독실한 침례교도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던 이중성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됨으로써 자신의 후손들에게 그 굴레가 쏠 것을 두려워했다.

록펠러는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음에도 아내 로라 스펔먼 이외의 다른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또 매일 일기와 같은 개인 회계장부를 기록하며 단 한 톨의 무의미한 개인지출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 역시 비슷한 삶을 살았는데 록펠러 부부는 평생 술이 나오는 파티나 행사에는 아예 가지 않았다.

록펠러에 대한 여론의 공세는 유태계 자본에 의해 장악된 미국 내 언론의 견제도 한몫 한 건 분명하다. 록펠러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카네기, 반더빌트, H.포드, JP모건 같은 인물들 역시 독점적 지위를 누렸고 온갖 편법과 탈법 속에서 사업을 키운 인물들이지만 록펠러만큼 여론의 비난에 시달리지는 않았다.

록펠러는 마크 트웨인이 도금시대로 명명했을 만큼 물질주의가 판친 1870년대 미국의 전형적인 성공 모델이었다. 당시 미국에는 자본주의 혁명의 물결이 밀어닥쳤고, 검약과 자수성가, 일 중독에 가까운 성실함은 최고의 덕목이었다.

잔인하고 교활한 사업 방식, 정치인과 관료들에 대한 대대적인 뇌물 공세 등의 부정적인 면과 통 큰 기부와 굳건한 신앙심, 소박하고 근면한 서민적인 면모 등의 긍정적인 면이 공존했던 록펠러의 인생은 19세기 후반 미국 자본주의의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준 축소판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정부와 기업경영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전해주고 있다.

글 | 백재호 편집장

나는 증기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없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도 훨씬 복잡한 기계인 인간을 알려고 노력했다. - 존 D. 록펠러 -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갈등 해법 없나?

대구시, 민간사업자와 MOU체결 감추며 밀실행정 논란 자초
달성군 하빈면 VS 수성구 삼덕동, 유치전 가열
이전 추진 과정 전면 공개하고 투명성 확보해야



1970년에 조성된 달성공원 내 동물원(12만8천700㎡)은 삼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달성공원 외곽 토성(길이 1,300m, 높이 4~10m)을 복원하는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따라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 본 달성공원의 모습.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자리 잡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시가 동물원 이전과 관련한 민간사업자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이를 숨겨온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동물원 유치를 염원하고 있는 수성구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애초 이전 예정지인 수성구 삼덕동 구름골 주민들은 대구시의 몰래 협약 체결 사실은 기존 결정을 뒤엎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조치라며 대구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시가 1993년 구름골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결정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10여년 이상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에 달성군 하빈면 주민들이 동물원 유치에 나서면서 수성구와 달성군 지역 간 갈등의 불씨도 피어오르고 있다. 특히 동물원 이전이 지연되면서 2010년 문화체육부로부터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대구지역 선도사업(120억원)으로 선정된 달성토성복원사업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실태와 이를 극복할 나름의 해법을 살펴봤다.

밀실행정 논란

대구시는 1993년부터 수성구 삼덕동 구름골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최초 결정한 후 2000년에는 수성구 삼덕·연호동 일대 68만5천㎡에 1천800여억원을 들여 사파리 공원 건립 계획을 세웠으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이전이 13년 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민간사업자와 비밀리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 1월 또다

시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연구(9천만원) 용역을 발주했다.

이동희 대구시의원은 지난 4월3일 '대구시가 지난해 11월20일 동물원 이전을 놓고 4개 업체로 이뤄진 민간 공동투자자(사업자)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을 숨겨왔다'고 협약서 문건을 공개했다. '대구 사파리파크(가칭) 조성사업 양해각서'에는 달성공원 동물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 사파리를 짓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들은 5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하고, 대구시는 대신 이들 업체에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동희 시의원은 "대구시가 투자 양해각서 체결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만행위이며, 기존 입지를 변경하기 위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수성구청과 구름골 일대 주민들도 "3월 31일 열린 삼덕동 주민 간담회 때 대구시 실무책임자는 '민자유치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을 속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의뢰한 동물원 이전 관련 용역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

서 “특정 지역을 염두하고 있거나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를 갖고 비밀리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대구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유치를 원하는 지역의 과열경쟁을 우려해 협약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세워 추진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수성구 VS 달성군 유치전도 가열

대구시의 밀실행정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동물원 유치전에 나선 수성구와 달성군의 경쟁도 과열되고 있다.

수성구청을 비롯해 1월 동물원 수성구 이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한 수성구의회의 결의문 채택은 물론 대구지역 주요네거리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동물원 수성구 이전 당위성 홍보와 이전청원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수성구 측은 “삼덕동 구름골 일대 주민들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1993년 도시공원 결정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제한과 생활불편 등의 불이익을 참아온 만

큼, 동물원을 원안대로 이전하는 것만이 주민피해 보상과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며 “동물원 이전 문제는 도시계획의 원칙과 지역발전 비전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 논리로 처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조 특위 위원장은 “도시철도 2, 3호선과 일반도로, 수성나들목 등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야구장과 미술관, 육상진흥센터, 대구스타디움, 쇼핑몰 등 인프라와 연계한 복합레저타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지가 삼덕동 구름골 일대”라고 주장했다.

수성구에 맞서 달성군의회를 중심으로 한 달성군 하빈면으로의 동물원 유치 노력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8월 하빈면 주민 등 33명으로 구성된 ‘달성공원 동물원 하빈이전 유치추진위원회’가 유치활동을 펴고 있고, 달성군의회는 지난 2월25일 ‘달성공원 동물원 하빈 이전 및 유치 건의안’을 채택해 대구시에 전달했다.

달성군의회는 “하빈지역은 전체 면적의 6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다.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토지 매입비와 광역교통망 접근



올해 하반기 이전 입지가 최종 결정될 달성공원 내부 전경



대구시가 민간사업자와 투자 양해각서를 숨긴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 수성구의의회는 거리로 나가 대구시의 행정을 규탄하고 삼덕동 구름골 일대 이전 당위성을 홍보했다.

성의 이점이 있고 4대강 사업으로 정비된 낙동강의 자연 생태 자원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동물원 유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권광수 하빈이전 유치추진위원장은 “지역발전에 대한 하빈면 주민들의 염원은 혐오 시설인 교도소까지 받아 들이는 수준이다.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동물원의 하빈면 이전은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달성공원 동물원은 13년간 이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애초 입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원안대로 입지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달성군 주민들은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나름의 논리를 내세워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여기에 대구시는 새 동물원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 체결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지가상승을 핑계로 내놓는 등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을 보여왔다. 이에 대구시의회와 수성구, 수성구 주민에 이어 달성군 주민들까지도 대구시의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민간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동물원 이전사업이 지지부진했고, 경쟁 과열과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돼 민간 투자자와의 양해각서 체결 사실을 숨겨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과정을 숨기고 동물원 이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구시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유치 희망 지자체간 경쟁과 경쟁에 따른 후유증만 심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동희 대구시의원은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대구시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동물원 이전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공개해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원 이전지가 최종 결정되더라도 누가 그 결과에 승복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지역민들도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아니라 적자가 나지 않고 사업성이 보장되는 입지를 결정하는 데 모두가 동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글 | 배준수 취재팀장 · 사진 제공 | 대구시

면세대상사업과 과세대상사업의 종류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 사장은 돼지고기를 단순 포장해 식육점과 인근 식당에 납품하기도 하지만, 돼지고기를 소시지로 가공해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돼지고기 판매가 면세이므로 소시지 판매도 당연히 면세라고 생각한 A 사장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않고 부가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매년 1월에 전년도 매출액을 신고했다. 그런데 어느날 세무서에서 부가세신고를 빠뜨렸으니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돼지고기를 취급했는데 왜 부가세를 내야 할까. 면세 재화나 용역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뿐 법인세나 소득세는 일반사업자와 같게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를 낮추는 목적)

- ①미가공 식료품 및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②수돗물
- ③연탄과 무연탄 ④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⑤여객운송용역
- ⑥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⑦의료보건용역 ⑧교육용역, 도서관과 박물관 등의 입장
- ⑨도서, 신문, 잡지, 관보 및 뉴스통신(광고제외)
- ⑩예술 및 문화와 관련된 행사 ⑪토지 ⑫금융보험용역
- ⑬저술가 및 작곡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여기에서 미가공 식료품이란 전혀 가공을 하지 않았거나 정미, 제분, 정육, 건조, 냉동 등 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친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과를 미가공된 농산물이므로 면세에 해당하나, 사과를 가공해 캔 주스 형태로 판매한다면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소시지는 돼지고기를 가열해 익히고 기타 양념을 하고 포장하면서 완전히 성질이 변한 것으로 간주 되므로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또한, 상기 면세대상 중에는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만 면세로 적용되는 때도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학원은 교육용역이므로 면세대상이지만 관할교

육청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 임대는 과세

토지는 면세대상이므로 토지를 공급(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며,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담한다. 그러면 토지의 임대는 면세대상일까. 토지의 임대는 용역(서비스)의 공급으로 취급하므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를 공급하는 것과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큰 차이를 두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이점을 주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무조건 유리한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과세사업자보다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세만큼 구매금액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영세율은 매입세액 공제도 받고 매출세액은 면제되므로 가장 유리하다.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의 세무신고

개인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10일까지(종전 1월31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전년도 매출액과 중요경비 등 일반적인 사항을 제출하는 것으로, 특히 매출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또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 과세사업자와 같다. 법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 없이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사항을 확정해 신고하면 된다.



윤기태
경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 세무사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장소마케팅의 방향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 및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 속에서 국가와 기업의 자율성, 사람과 자본의 이동성 강화는 국가와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지역 및 도시(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내의 경우를 살펴봐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브랜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가져왔고,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장소 마케팅(place marketing)이라 불릴 수 있는 주민, 관광객, 투자자 유치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일반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인 성장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됨에 따라,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와 더불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의 만족도와 거주지에 대한 자긍심 증대에도 힘쓰게 됐다.

장소 마케팅은 초기에 주로 지역축제 내지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지역 홍보 및 지역 특산물 판촉 같은 영역에 국한됐다가, 이후 기업 및 제품 관련 브랜드 이론을 장소 마케팅에 도입함으로써 전략체계 및 내용을 넓혀 나갔다. 하지만, 일반 제품의 마케팅·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른 '지역의 장소'라는 특성상 목적하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기업 부문에서 발전된 브랜드 전략을 '지방자치단체의 권역'이라는 대상에 적절하게 변형 및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좌로부터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의 동쪽 끝에 있는 탑시계 빅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파리 만국박람회 때 귀스타브 에펠의 설계로 세워진 에펠탑.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영국 런던, 이집트 카이로,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고 미국의 뉴욕. 이렇듯 나라와 그 도시의 이름만 들어도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다. 로맨스와 사랑의 거리 파리, 열정과 축구의 도시 바르셀로나, 신사의 도시 런던, 피라미드와 �핑크스의 이집트, 올림픽과 신들의 고향 아테네, 바쁜 뉴욕의 모던한 일상 뉴욕. 이러한 도시와 특징이미지 간의 연결고리 형성은 한번 정착되면 쉽사리 잊히지 않는다.

이와 같은 대부분 도시들은 도시정부와 전문가집단, 민간기업의 파트너십으로 이뤄진 도시마케팅 전담조직을 구성해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최소한 1년 이상 장기간의 치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대표 이미지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에 걸 맞는 하위 슬로건과 관광프로그램을 결합해 적극적이고 일관된 홍보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소비자-도시 브랜드 간에 형성되는 긍정적 관계구축으로 명품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장소마케팅의 핵심 키포인트는 슬로건, 로고홍보, 언론 등을 동원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수동적 마케팅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고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체험형 프로모션이다. 나아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강력한

프로모션을 집행하느냐가 장소마케팅의 성공 여부를 가른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장소마케팅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민간 분야의 전문성과 활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 파트너십의 전문 마케팅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소마케팅을 통해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해, 관의 행정력과 민간의 기획력, 창의력, 경영력이 결합된 전문마케팅 조직구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민관파트너십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우선으로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자원에서도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집단과 문화관광시설 운영주체, 지역주민단체 등이 네트워크화돼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글 | 이광희 편집위원





우리땅 독도 지킴이, 독도 홍보 첨병!

지난 4월18일은 2005년 이후 8년 만에 우리땅 독도 입도객 100만명을 기록한 날이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고 증명되고 있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범 야욕은 전혀 속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와 경상북도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대해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입증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해 홍보하고 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서는 '독도의 접근성 개선', '정주여건개선', '독도 주민의 경제활동 지원' 등 영토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경북도청 독도정책과의 장관식(52) 주무관은 우리의 영토 독도를 제대로 알리고 지키고자 밤낮없이 뛰고 있는 첨병이다.

장관식

경북도청 독도정책과 주무관

1991년 고령군청에서 행정 7급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장 주무관은 2005년에 경북도청으로 전입한 뒤 현재 독도정책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독도홍보 종합계획수립에서부터 독도 문화·예술사업 추진, 언론매체를 통한 독도광고 및 홍보, 독도관련단체 홍보지원 등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홍보하고 알리는 업무를 도맡고 있다.

경북도가 1900년 10월25일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킨 것을 기념해 10월을 '독도의 날'로 지정했고, 독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안용복예술했, 독도 문예대전, 독도기념품 공모전 등 문화 예술행사와 논문공모전, 독도사료연구회, 국제학술회의 등 학술대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 모든일이 장 주무관의 영역이다.

현재는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정례행사 외에도 독도 한복패션쇼, 독도음악회, 독도사계그리기 등 문화예술행사와 순회전시회, 시민강좌 등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계획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장관식 주무관의 당찬 포부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것은 두말하지 않아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섬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섬 독도에 문화예술의 꽃을 피워 우리 국민들에게는 '낭만의 섬'으로, 세계인들에게는 '한국의 아름다운 섬', 한국문화가 살아있는 '평화의 섬'으로 알려지는데 미력하나마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글 | 손지강 편집위원



대구 서구청 교육정책팀원들이 강성호 구청장(가운데)과 함께 교육으로 꽃피우는 서구 만들기를 다짐하며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교육발전의 싹을 틔워 교육으로 꽃피는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대구 서구청 교육정책팀

2011년 10·26 보궐선거로 대구 서구청의 수장이 된 강성호 구청장은 서구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교육’을 꼽았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내세운 이유는 염색산업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었던 과거의 영화를 뒤로하고 대구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섬유산업의 쇠퇴와 맞물려 교육과 주거환경 등 열악한 현실을 이기지 못해 너도나도 떠났던 서구를 교육으로 꿈을 키워 젊고 생동감 있는 서구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그 중심에는 교육전담부서인 ‘교육정책팀’의 정예 5인방이 있다.

교육발전의 씨앗을 뿌리다

교육정책팀은 2011년 11월14일 출범해 한돌을 갓 넘겼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성과를 내놓고 있다.

서구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김천호(행정 6급) 팀장,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 학습봉사단 업무 베테랑인 한미향(행정 7급) 주무관, 구민학습관 운영과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리를 맡은 이상학(행정 7급) 주무관, 작은 도서관 건립과 대학생 학습봉사단 운영을 맡은 유미란(행정 7급) 주무관, 국제업무통·번역과 해외 도시·학교 교육 교류 업무 전담인 조희경(외국어 전문직) 주무관이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먼저 구민들과 학생들의 교육장이 되는 구민학습관을 만들었다.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지원받아 구청 청사 4층에 마련한 구민학습관은 학생들에 대한 자기주도학습을 비롯해 학부모 교육과 입시설명회, 한글교실과 자격증반 등 다양한 교육관련 프로그램의 산실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교육관련 국·시비 공모사업 4개 분야에서 1억여원을 지원받는 등 5년, 10년 뒤 큰 열매를 맺을 기초를 하나하나 다져가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정책팀은 영어권 국가와의 교육 국제교류 활성화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전국 최초의 무료 홈스테이 방식 학생 교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해외연수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연수기회를 제공, 국제적 마인드를 겸비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나가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2차례 교류를 통해 필리핀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홈스테이와 문화체험, 공동수업에 참여한 서구지역 학생들의



지난 2월19일 강성호 서구청장과 김천호 교육정책팀장, 조희경 주무관이 싱가포르 페이춘공립학교를 방문해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논의한 후 학교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

김천호 교육정책팀장은 “구청장님의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려는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시도 숨돌릴 틈도 없이 팀원들 모두가 업무에 매진한 결과, ‘교육 오지’라는 불명예가 이제 서구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며 “열악한 재정에도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학부모, 대학생들의 재능기부와 더불어 교육 도시 서구를 염원하는 구민들의 바람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으로 더 큰 서구를 만든다

지난 4월5일 대구 서구의회는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최종 수정안을 가결했다. 강성호 서구청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 의회의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되는 진통을 겪고 1년 만에 통과된 것이다. 더는 교육이 교육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공동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강 구청장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오는 6월 창립총회에 이어 8월 출범하게 될 서구교육발전위원회는 대구에서 가장 낙후된 서구지역의 획기적인 교육 여건 개선의 핵심 창구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교육정책팀의 업무도 서구교육발전위원회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다. 교육정책팀은 서구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서구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50억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 장학사업과 교육 인프라 구축, 명문학교 육성과 우수교사 유치 등 인재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자기주도학습과 학부모 역량 증진사업, 교육의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워 면학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 서구 교육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강성호 서구청장은 “앞으로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도록 국제교류 대상국가 및 교류도시, 교류분야를 다양하게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 배준수 취재팀장

사진 제공 | 대구 서구청

진분홍 천상의 화원이 펼쳐진다, 비슬산 참꽃문화제

달성군 개청 100년 맞아 역대 최고의 축제로
역사 소재 결합한 맞춤형 스토리텔링 콘텐츠 풍성
5월1일~8일까지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대

신선이 거문고를 타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비슬산(琵琶山). 우리나라 100대 명산에 랭크돼 있다. 대구 달성군 현풍쪽에서 보면 금강산에 비유할 만큼 기묘하고, 청도쪽에서 보면 팔공산처럼 웅장해 보인다고 한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낙동강의 빼어난 경치는 물론, 봄에는 철쭉과 진달래,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 가을에는 단풍과 억새군락, 겨울에는 얼음동산과 설경으로 유명하다.



해마다 5월이 되면 비슬산 참꽃군락지는 진분홍 파도가 출렁이는 장관이 된다.



지난해 열린 참꽃문화제에서 2012인분 참꽃비빔밥 만들기·시식회의 한 장면



대구 달성군과 동화사는 지난 3월1일 참꽃문화제가 열리는 비슬산 대견사 터에서 '대견사 중창 기공식'을 열었다. 일제에 의해 강제 폐사된 대견사가 복원되면 참꽃문화제와 연계한 문화·예술·관광의 거점으로 서, 팔공산 깃바위에 버금가는 불교 문화유산 관광지로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봉인 대견봉(1,084m)과 자연휴양림의 주봉인 조화봉(1,058m), 삼국유사를 집필한 일연스님이 기거했던 대견사 터(1,037m), 관기봉, 칼바위가 있고, 대견봉과 조화봉의 능선을 따라 100만여㎡(30여만평)에 달하는 참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1997년부터 독특한 축제가 이어지고 있다. 비슬산 참꽃제에서 지난해부터 이름을 바꾼 비슬산 참꽃문화제가 그것이다. 5월1일부터 8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무수히 쏟아지는 전국의 꽃관련 축제 가운데 으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달성군은 올해 비슬산 참꽃문화제에 큰 의미를 담았다. 군청 개청 100주년을 맞아 100년과 관련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에 초점을 맞췄다. '100년 달성 참꽃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비슬산 참꽃문화제는 퍼레이드 행진을 시작으로 비슬산 산신제, 달성의 참맛을 맛볼 수 있는 2013인분 참꽃비빔밥 만들기와 시식회, 개막축하공연, 100년맛이 콘서트, 태권무갈라쇼, K-pop 콘서트, 참꽃 가

요제, 판타스틱 콘서트, 코믹년버벌 콘서트, 특산물경매, 캣테일퍼포먼스, 달성호 콘서트, 도전 100곡 등으로 이어진다. 개막축하공연에는 국민가수 인순이가 가창력의 진수를 선사하고, 참꽃가요제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MC 송해씨가 사회를 맡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대견사 중창 개토제를 비롯해 꽃꽂이 전시회, 참꽃분재전시, 특산물판매장, 먹거리장터, 대견사 기와불사, 전통차 시음회, 참꽃제 시낭송회, 참꽃제 백일장 시상식 등이 열리고, LED 크리스탈 플라워전시회와 한지·도예체험, 천연 염색체험, 참꽃 탁본 찍기, 네일아트, 캐리커처 체험, 참꽃뉘시, 소망나무 메시지 달기, 스탬프앨리 등도 준비돼 있다.

여기에도 참꽃을 주제로 하지만 참꽃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언스 페스티벌, 달성향토전통음식경연대회 녹색과학축전, 비슬산 참꽃 학술연구 등 과학과 음식, 환경을 주제로 한 서

브축제를 함께 진행한다.

올해 축제부터는 비슬산 참꽃열차 상품이 개발돼 전국의 관광객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셔틀버스 운행과 도시락 제공을 통해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축제장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참꽃문화제뿐만 아니라 주변 볼거리도 풍성해 1석2조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참꽃이라는 자연을 매개로 진행되는 축제 특성 상 개화시기를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지만, 어린 학생에서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갖고 있기에 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면서 "군청 개청 100년을 맞아 군의 꽃을 국화에서 참꽃으로 바꿨고, 미래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달성군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축제 현장에 마련하는 달성군홍보관에서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 김원현 기자

사진 제공 | 대구 달성군청

전국 누비는 교통수단에 날개를 달다

교통광고 전문기업 (주)한국교통정보



이강태 대표가 제작원가 절감에 도움을 준 초대형 실사출력기에 대해 설명을 한 뒤 활짝 웃고 있다.

지난해 국내 광고시장은 전년대비 2.2% 성장한 9조7천706억원으로 조사됐다. 그 중에서도 지상파TV와 신문광고는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모바일 광고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광고와 옥외 광고는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옥외광고는 프로야구 인기로 인한 경기장 광고, 한국영화 관객 수 증가 등과 더불어 극장광고와 버스 외부광고 등 교통매체의 광고판매 호조 등으로 7.8% 성장한 9천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교통매체를 통한 광고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독특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외버스 등 전국을 누비는 교통수단을 통한 광고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한국교통정보는 대구가 품은 또 다른 경쟁력이 되고 있다.

20년 노하우, 업계 선두 주자로

한국교통정보는 1988년 서울올림픽 기금 조성을 위해 TV, 라디오, 신문, 잡지와 차별화된 매체인 교통광고 사업을 20여년간 운영해왔다. 현재 경북지역 시내버스 1천328대를 비롯해 전국 주요도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1천102대, 대구·경북지역 택시 1천500대의 교통매체를 확보하고 있다.

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 가장 선



호하는 '랩핑광고'가 한국교통정보의 주 무기다. 랩핑광고는 버스 등의 외부표면에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의 상징적인 이미지와 홍보 문구를 삽입한 움직이는 광고판으로, 지역에서는 특산물 홍보 등을 접목한 봉화군과 칠곡군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있으며, 반복 노출되며, 도심과 주요 교차로에서 움직이며 광고를 노출하는 등 이제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

이강태(49) 대표는 "지하철 역사나 빌딩 등 고정된 건물의 랩핑 광고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전국을 누비는 버스 등 랩핑 광고는 광고료가 저렴하면서도 엄

청난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대비 효과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정보는 장비와 기술력에 대한 투자를 통해 나름의 노하우도 갖춰 경쟁력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02년부터 초대형 실사출력 및 솔벤출력 장비를 도입해 제작원가를 50% 절감했다. 랩핑 광고 자체를 직접 출력해 원가 절감은 물론 출력 업계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게 됐다. 또한, 10여년 이상 인연을 맺고 함께 성장해 온 광고주들과의 꾸준한 만남, 정보교류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들도 한국교통정보만의 노하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대표는 "GPS(위성항법장치) 기반 정보를 교통정보와 접목해 대중교통과 시민 편의 개선에 이바지하는 전문회사를 목표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반자에게는 성공을

한국교통정보는 광고를 통한 홍보를 주로 수행하기에 항상 광고주와 동반성장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한의원으로, 청도 지역에서 부야한의원이란 이름으로 운영

중인 '도깨비한의의원'이 그것이다. 독특한 상호를 버스 랩핑광고와 접목해 홍보한 결과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환자들이 줄을 서서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유명세를 톡톡히 치렀다.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다.

지난해 6월 당시 새롭게 부각된 워터파크와 속옷 업체에서 소비자들의 욕구와 흥미를 극대화하고자 랩핑광고에 담은 모델의 노출수위를 한껏 높였었다. 이에 한국교통정보는 청소년들에 미칠 영향과 논란 가능성을 고려해 긴급하게 광고 안을 교체해 문제없이 광고 집행을 하기도 했다. 화합과 소통을 중시하고 가족경영을 철학으로 삼은 이강태 대표의 경험과 순발력이 발휘된 순간이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버스 등 외부광고는 불법 거리 현수막의 대체 홍보 수단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하며, 관공서의 시책 홍보와 의료계 홍보수단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면서 "주목받는 매체에 광고를 집행하며 성장을 하면서도 광고주들과 동반성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업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 · 사진 | 김원현기자



SN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활용

SNS, 즉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도구가 됐다. 온라인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성에서부터 정보공유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SNS는 이미 개인을 넘어서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 활용하고 나설 정도다. SNS를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봤다.



대표적 SNS인 블로그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간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좌측은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공식 블로그 '광주랑', 우측은 홍보와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한 경상북도의 통합 SNS인 '두드림'.

SNS

기본적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온라인 인맥 구축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지칭한다. 미국의 트위터, 페이스북, 한국의 싸이월드, 미투데이 같은 미디어와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10억명이 이용하고 있고, 트위터의 경우 한국인 사용자수가 전 세계 15위 정도다.

국내에서도 인터넷의 발전과 스마트 폰의 개발은 이러한 SNS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좀 더 폭넓게 만들어 주고 있다. 현재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검색하는 데 SNS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SNS는 일반인에서부터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소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보급은 SNS의 활용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SNS

지방자치단체들도 SNS를 통한 정책 등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정치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과의 대화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과거에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알렸다면, 이제는 시·공간적 제약 없이 쌍방향 실시간 교류가 가능한 SNS를 활용하고 있다. 과거 단일채널의 매체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다양한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SNS 활용 성공 사례

몇몇 지자체는 이러한 SNS의 효과를 톡톡하게 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1년 부터 SNS 통합 멀티 플랫폼 소셜미디어센터(SMC)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정책의 운영 이슈 및 각종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고양시는 고양시와 발음이 유사한 동물인 고양이를 통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있다. 고양시는 대외적으로 일산이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어 지역의 브랜드 홍보에 불리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SNS를 통해, 고양시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발표한 '2013 민선5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서 종합 SA등급(최우수)에 선정됐다. 4개 분야 평가 가운데 주민소통분야와 웹소통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무엇보다 SNS를 통한 쌍방향 소통에 힘쓴 결과 이 같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

관광부에서는 화천의 유명인사 소설가 이외수 선생의 SNS 사례를 들 수 있다. 트위터 및 각종 인터넷 활동이 활발한 이외수 선생이 화천의 특산품을 소개하여 전량 판매가 되었다는 사례는 SNS의 순기능의 사례로 유명하다.

경북지역 지자체와 SNS 활용

경북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두드림'(Do Dream)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도민과 소통하면서 경북도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있다. 또한 도내 23개 시·군의 문화와 관광 축제 등의 다양한 소식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발된 블로거와 도민들이 SNS에 직접 참여해 경북의 다양한 소식들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홍보가 다소 부족해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다. 현재 두드림이라는 단어를 대형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검색하였을 경우 경상북도의 두드림 사이트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또한, 명칭에 있어서도 다른 시·도 및 프로그램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최 5년 연속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광주시 공식 블로그 '광주랑'의 경우, 블로그 기자단원들이 온라인 시장이 돼 시민의 입장에서 광주의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했다. 또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뿐만 아니라 광주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SNS를 통한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소통의 시정 이미지를 통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광주와 달리 홍보와 적극적인 활용이 다소 부족한 경북도의 두드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의 전달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SNS의 장점을 살려 도민들의 다양한 생활속 이야기를 통해 도민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이고 함께 나눠야 할 것이다. 진정한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두드림 또한 성공적인 정책 활용의 장, 도민들과의 대화의 장, 21세기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기환 편집위원

국민행복기금, 서민생활안정 신호탄 될까?

1억원 이하 빚 6개월 이상 연체자, 최대 70% 탕감
직접 방문 신청자 10% 채무감면 우대
신용회복 · 고용 · 자립으로 이어져야

박근혜 정부가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설립한 '국민행복기금'이 4월22일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민행복기금은 서민 가계부채 해결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와 성실한 채무자를 뒤흔친 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서민들은 벼랑에서 빛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의 자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는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된 4월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채무조정자들이 국민행복기금 가접수를 하고 있다.

채무감면,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다중채무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의 가접수가 4월22일부터 30일까지 이뤄졌고, 본 접수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어진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므로 사채업자에 시달리는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 18곳,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곳,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전국 국민·농협은행 지점에서 접수할 수 있다. 5월1일부터는 인터넷(www.happyfund.or.kr) 접수도 가능하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채무감면을 산정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 서류를 지참하면 되고, 소득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세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소득확인 서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최근 3개월간의 급여통장 또는 최근 월급명세표로 증명할 수 있다. 사업소득자는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이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이 필요하다.

채무조정 신청 대상자는 지난 2월말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한 채무자이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대출자의 소득수준 채무액 부양가족 수 등을 감안한 상환능력과 나이, 연체기간을 고려해 11개 구간으로 나눈 뒤 차등화된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는 원금의 40~50%를 감면하며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고령자 등은 60~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10월말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채무감면율은 30~40%다.

특히 정부는 가접수 기간 직접 창구를 방문한 사전 신청자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 의지가 있다고 판단, 채무감면비율을 10%정도 우대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채무를 사 와서 탕감해주는 식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도 제외되며,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는 사람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을 탕감받았더라도 채무조정 후 성실한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종전의 채무가 다시 부활한다. 그러나 갑작스런 실직·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황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 가능하고,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이면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또 채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현역입영자이면 성년이 되거나 제대 때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빚 탕감 넘어 신용회복·고용·자립과 연결돼야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장기연체자들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를 넘어 서서 신용회복과 연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안 갚는 것이 아니라 생활형편이 어려워 못 갚는 사람이 절반이라도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 것이며, 갚을 능력이 있는데 갚지 않는 사람들 또한 가려낼 것이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성공하려면 채무조정이 빚 탕감으로 끝나지 않고 신용회복과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채무의 늪에서 시달리는 분들이 행복기금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용회복과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채무를 상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서 채무자 스스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가접수가 시작된 4월22일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채무자들이 다시 빚의 늪에 빠질 가능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고용부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 성공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연계지원해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 배준수 취재팀장 · 사진 | 김원현 기자

고동현
서대구산업단지협회 이사장



고동현 서대구산업단지협회 이사장이 서대구산단의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한평생 섬유에 바친 열정,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에 쏟는다

대구 서구 중리동과 이현동 일대에 자리한 서대구산업단지(이하 서대구산단)는 1970년대 중반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에 크게 번창했다. 그러나 섬유산업 쇠퇴에 따른 대체산업을 육성하지 못한데다 경쟁력 또한 낮아졌고,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과 도심 내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민원 등으로 대대적인 체질개선과 리모델링이 필요할 정도가 됐다. 다행히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42개 도심노후산업단지 가운데 대구 북구 3공단과 함께 서대구산단을 재생사업시범지구로 지정했다. 지난 2월 3년 임기의 (사)서대구산업단지협회의 수장으로 선임된 고동현(60·이화제면 대표) 이사장은 성공적인 서대구산단 재생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 고동현 이사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붓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고동현 이사장으로부터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의 성공 요소와 앞으로의 역할을 들어봤다.

Q. 30여년간 섬유업에 종사한 경험과 노하우를 어떻게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에 녹여낼 것인가.

A. 대학에서 섬유를 전공하고 1982년 이화제면이라는 이불회사를 창립해 신제품개발과 다품종생산을 기업목표로 삼고 양모, 명주, 거위털, 목화 등 동물성 섬유와 식물성섬유, 화학섬유인 극세사와 옥숨, 맥반석, 참숯 등 기능성섬유를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고부가가치 이불솜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키워 왔다. 당장 눈 앞의 작은 일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로 경영을 해왔다. 마찬가지로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에 있어서도 서대구산단 장래에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서 미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자세로 임할 생각이다.

Q. 서대구산단의 현주소는.

A. 현재는 변창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침체일로에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전국 최초의 도심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시범지구로 지정됐고, 입주업체 동의를 62%를 얻어 올해 내로 지구지정을 받고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Q. 재생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가.

A. 재생사업시범지구로 지정되면 2천억 원가량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도로와 주차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해서는 산단 발전을 주도해나갈 새로운 앵커기업이나 산·학·연이 함께하는 연구개발(R&D)시설이

많이 들어셔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육성진흥원이나 스마트봉제산업빌리지 같은 지원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 욕심 같아서는 지금 계명대에 있는 디지털산업진흥원(DIP)도 수성구에 갈 것이 아니라, 서대구산단에 입주해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서대구산단은 서대구지역의 관문으로서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다. 그래서 구미 등 인근 산단을 지원하는 중추지원기지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구시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공약사항으로 보고한 대구경북광역철도망과 대구~광주간 철도가 건설돼서 서대구역이 생긴다면 서대구산단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본다.

Q. 땅값 상승, 공해유발업체 문제에 대한 해법은.

A. 개인적인 생각은 재생사업을 하면 일정부분 지가 상승도 있을 수 있겠지만, 토지의 실질가치는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해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공해유발업체는 더 이상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또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을 통해 공동폐수처리장 등을 건설한다면 업체부담은 줄어들고 오히려 환경을 더 좋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Q. 재생사업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은.

A. 앞서 말했듯이 서대구산단은 지원시설이 들어설 부지 면적이 많이 필요하다. 앞으로 준공업지역 면적이 보다 확



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서 제조업비율을 40%까지 낮추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 문제는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실을 초청해서 강력히 건의했지만, 앞으로 반드시 시행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을 들어서 크게 기대하고 있다.

Q. 협회 운영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복안은.

A.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검토해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예를 들면, 공장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권장해서 입주업체는 임대료를 챙기면서도 탄소배출권(CDM)을 확보하는 사업과 정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는 에스코(esco)사업으로 전기절감기 보급을 통해 업체의 자부담 없이 전기를 7%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사업, 하수슬러지를 연료화 하는 사업 등을 적극 개발해 협회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글 | 배준수 취재팀장
사진 | 김원현 기자

시민과 함께 한 소통과 화합의 행정 빛났다

최영조 시장 취임 4개월, 경산시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해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영조(58) 경산시장이 4월30일자로 취임 4개월여를 맞았다. 초박빙의 접전을 통해 당선돼 첫 항해를 시작한 최영조호는 전임 시장이 공무원 인사 및 인허가 청탁 대가로 구속된데 따른 시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는일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결코 만만치않은 험로에도 불구하고 순항하고 있다. 최 시장 취임 후 4개월이 지난 현재 경산의 모습과 미래 청사진을 살펴봤다.



최영조 경산시장(왼쪽)이 금각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을 살피고 있다.

소통과 화합

지난 4개월여간의 시간은 경산시 수장의 부재로 흩어진 민심을 모아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한 '소통과 화합'에 주력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역대 유래없이 치열했던 선거를 끝내고 보궐선거 출마자들과 간담회를 가져 선거로 인한 앙금을 풀고 지역발전을 약속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

한 일로 소통과 화합의 시발점이 됐다. 또한, 그동안 소원했던 국회의원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어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무겁고 힘든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고자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와 같은 최 시장의 포용력 있는 행보는 임기 초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지역현안 해결에 학계의 도움을 받기 위해 관학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했다. 최 시장(오른쪽)이 홍철 대구가톨릭대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19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최영조 경산시장이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지역의 민심을 바르게 듣기 위해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주요사업 현장을 매일 방문해 직접 사업을 챙겼다. 또한, 시장의 시정철학을 표방하는 시정슬로건을 기존 틀에서 탈피하여 공모제로 전환, 전국민의 뜨거운 관심속에서 새로운 시정슬로건인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을 탄생시켰으며,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놓는 시정주요시책 공모제도 시행하고 있다.

지역발전 모색

경산상공회의소, 진량공단이사회 등 다양한 경제계 인사들과도 대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협조를 당부하는 등 정치, 경제부문의 두터운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역대 시장과는 달리 특유의 유연함이 최대 장점인 최 시장은 지역현안을 풀어나가는데 학계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인식에서 지역의 주요대학 총

장들을 직접 찾아 지역과 대학이 관학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전국에 유례없는 12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 대학의 엘리트 교수들을 전공별로 열린행정, 복지환경, 산업건설, 문화체육 등 4개 분과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싱크탱크로서 시장의 각 분야에 자문역할을 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최 시장은 지역의 3대 현안사업으로 손꼽히는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해 유치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시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시책발굴에도 애착을 보였다. 신정부의 정책운영방향에 부합하고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경산의 신성장을 이끌 새로운 시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최 시장의 특별지시로 시도된 시책발굴보고회에서는 경산의 미래를 고심해 온 공무원들의 반짝이는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그동안 공직자와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당해 온 비합리적 인사시스템을 바로잡아 누구나 공감하는 소통인사를 단행했고 취임 후 빠듯한 일정속에서도 곧바로 업무보고부터 챙기는 등 행정전문가다운 면모가 돋보였다.

최 시장은 임기초부터 공무원들에게 모든 시정은 시민중심으로 추진돼야 하고, 오로지 시민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대민친절 3A운동(First Action(맞이 인사), Middle Action(업무처리), Last Action(배웅 인사))을 펼치는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취임 후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 25만 시민과 일천여 공직자들의 응원속에 큰 과오없이 무난히 시정을 꾸려나가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우리가 희망하는 일류경산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글 | 배준수 취재팀장
사진제공 | 경산시

한국정책리서치는 정책가치 실현을 위해 맞춤형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입니다.

한국정책리서치는 2006년 설립 이래
100여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책결정을 위한
최고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재)한국행정자치연구원 부설

한국정책리서치

본 원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427-6 2F 203호 Tel) 054-823-2829 Fax) 054-823-2828

대구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 지하1층 Tel) 053-721-6757 Fax) 053-766-0379

대구시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제, 시민 호응 폭발적

4월1일부터 시행, 콜센터 매일 전화 폭주



대구시가 지난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와 같은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주는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이후 실시해 오던 대형폐가전제품 수거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지금까지 가정에서 대형폐가전제품을 버리려면 주민자치센터나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대당 5천원에서 8천원의 수수료를 내고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 지정된 장소에 직접 내어 놓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 제도 시행으로 대형폐가전제품을 버릴 때에는 인터넷(www.edtd.co.kr)이나 전화(1599-0903)로 예약만 해놓으면 원하는 시간에 무료로 수거해 간다.

대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으로 시행 첫날부터 100건 이상이 예약됐고 거의 매일 콜센터(1599-0903)의 전화는 폭주상태다.

폐가전제품의 수거를 대행하는 전자산업환경협회 무상방문수거팀은 수거량이 많아 매일 밤 9시가 넘도록 수거작업을 펼치는 등으로 폐가전제품의 수거로 연일 눈코 뜰 새 없다.

시행 초에는 1t 차량 3대와 2.5t 화물차 1대로 수거했으나, 맞벌이를 하는 시민들이 야간에 수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협회에서는 대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수거팀을 1개 더 늘려 수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수거된 냉장고, TV 등 대형폐가전은 하루에 고작 1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시에 서도 크게 놀라고 있다.

대구시 우주정 자원순환과장은 “이번에 시행한 무상수거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 자원재활용은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까지 크게 줄여주는 등 1석4조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거한 대형폐가전은 대구시 위생매립장에 임시 보관(면적 1,000㎡)했다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의 리사이클링센터에서 안전하게 최종 처리한다.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해체, 파쇄한 후 플라스틱, 유리, 철, 구리, 알루미늄, CFC, 우레탄 등의 소재로 분류해 90%이상 자원으로 재활용된다.

글 | 배준수 취재팀장

경북, 대한민국 대표 귀농 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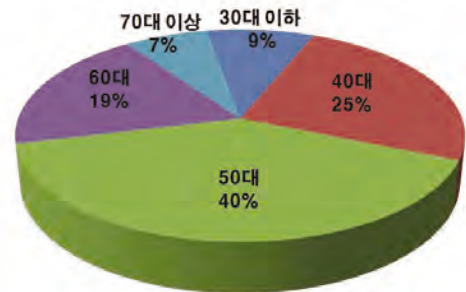
귀농 가구수 2004년 이후 9년 연속 1위

시·도별 귀농가구 현황
(단위: 가구)

(2012년 기준)



연령별 귀농가구 현황
(경북지역)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지난해 경북지역으로 귀농한 가구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2004년 이후 9년 연속 귀농가구 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통계청이 실시해 발표한 ‘201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귀농 가구 1만1천220가구(1만9천657명) 가운데 경북을 제2의 생활터전으로 선택한 귀농가구는 2천80가구(3천596명)로 18.5%를 차지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천840가구) 보다 무려 13% 늘어난 수준이며, 경북은 2004년 이후부터 9년동안 단 한 번도 귀농가구수 1위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발표 자료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에 이어 전남이 1천733가구(3천008명, 15.4%), 경남 1천434가구(2천602명, 12.8%)로 뒤를 이었다.

경북지역 귀농가구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40%로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40대(25%), 60대(19%), 30대 이하(9%), 70대 이상(7%)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성별은 남자가 1천488가구(71.5%), 여자 592가구(28.5%)였으며, 귀농전 거주지는 대구(28%), 경북(21%), 경기(14%), 서울(13%), 기타지역(24%)등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경북도내 귀농·귀촌인 유입 현황을 보면, 상주, 영주, 영천,

봉화, 청도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북도는 귀농·귀촌인의 적극적 유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0년 국내 최초 귀농인 인턴지원사업을 비롯해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귀농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등으로 귀농 초기 자립기반을 다지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제대군인지원센터와 지역 기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를 개최해 호응을 얻었고, 농업기술원과 농민사관학교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도 예비 귀농인들이 경북에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글 | 배준수 취재팀장



Cheong
'자연을 노래하.다'
Song

청송캠핑축제

Cheong Song

2013년 4월 ▶ 11월 매월 둘째주 (총 8회)

사과공원, 청운하천, 중평솔밭 등



참/가/안/내

	1박2일	2박3일	비고
참가비용	2만원		텐트 1동 기준
텐트 대여 비용	2만원	3만원	
참가신청	전 화 : 054) 851-7184 이 메 일 : worldcf@hanmail.net 홈페이지 : www.worldcf.co.kr		

* 개인용 전기는 제공되지 않으며, 화장실 및 세면대 시설이 불편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달래와 함께하는 전국 최초, 최대 규모 청송 캠핑 대축제

5월10~12일 청송 사과공원 · 청운하천 일대



천혜의 자연을 고이 간직한 청정 자연도시 청송에서 전국 최초, 최대 규모의 캠핑 축제가 열린다.

청송군과 (재)세계유교문화재단(이하 재단)은 5월10~12일 사과공원과 청운하천 일대에서 '수달래꽃과 함께하는 2013 청송 캠핑 대축제'를 연다.

이번 캠핑축제는 재단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는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 캠핑축제의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전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500팀이상)로 열리는 캠핑대회이다.

사과공원과 청운하천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두곳의 캠핑장과 청송의 대표 관광지, 수달래꽃 축제장을 잇는 셔틀버스를 운영해 캠핑족들이 청송군의 관광지와 대표축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청송지역의 재래시장과 지역상점을 이용하는 '착한캠핑'을 유도해 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의 판매를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청송 캠핑축제는 청송군의 강점인 천혜의 자연경관에 웰빙 트렌드를 맞춘 친환경적 프로그램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이에 맞춰 올해는 청송의 사계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둘째주 주말에 펼쳐진다.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은 청송 캠핑축제 이외에도 '봉화 한국과자축제' '영주 뮤지컬 정도전', '문경 군악의장페스티벌', '안동 실경수상뮤지컬 부용지에', '예천 삼강주막막걸리축제', '상주 낙강범월시회', '의성 실버문화대축제', '영양 세계 유교음식페스티벌' 그리고 유교문화권의 숨은 길을 찾아 라디오를 들으며 목적지를 찾아가는 '라디엔티어링', 고가를 문화 공간으로 활용한 '고가음악회', 유교문화권 문화기업 설립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사업과 학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리 | 김원현 기자



www.sjlife.or.kr/



/sjlike



seongjulife(네이버)



@seongjulife



2013 성주

생명문화

축제

SEONGJU
LIFE CULTURE
FESTIVAL

2013. 5. 16^목 ~ 19^일

장소 | 경북 성주군 성박숲 일원

주최 | 성주군축제추진위원회

생 · 삶 · 희망을 노래하다



자연의 깊은 울림
마음의 깊은 감동
대한민국 힐링의 시작

문경



한국관광
100선

한국인이 꼭! 가 봐야 할
관광지 3위 선정!

문경
새재



- 과거길, 여행길 등 우리나라 옛길 유산을 한눈에 보는 **옛길박물관**
- 자녀와 함께 배우고 즐기는 자연학습 및 생태체험장 **자연생태공원**
- 다양한 드라마, 영화가 촬영되어 볼거리가 풍부한 **문경새재오픈세트장**
- 맨발로 황도를 밟으며 자연을 맘껏 호흡할 수 있는 **맨발 황토길**

관광안내센터 문경새재도립공원내 T.054-550-6414



눈이 먼저 감탄하는 문경길경

문경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진남교반, 기암괴석과 맑은 계곡물이 아름다운 용추/쌍용/선유동/새재/오담계곡, 봉암사 배문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경천령



자루할 볼이 없는 체천여행

국내 최초 철로자전거, 문경관광시계경, 문경힐고랜드, 시계절별에 등 레저코스, 예술혼을 찾아보는 도자기전시관, 힐락을 주는 문천관 괴지여행



유리한 세월을 담은 전통문화

봉암사 극락전, 대송사 금동보살좌상, 김용시 동충 등 다양한 국가문화재, 고모산성 등의 유적지, 석탄산업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문경석탄박물관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지역축제

전국 으뜸 문경사과축제, 예술혼을 담은 문경 전통차발족제, 세계 최고품질 문경모미자국제, 옛길을 걸으며 추억을 쌓는 문경새재옛길 달빛사랑여행